

2020

제4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코로나 시대, 예술의 안부를 묻습니다

Editor's Letter

칼럼

문화정책이슈 1

문화정책이슈 2

문화정책이슈 3

예술 + ○○

연구보고서 갈무리

문화정책 뉴스 클리핑

예술인고용보험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팬데믹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코로나 시대, 당신의 예술은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활동

예술+정치

2019 창의예술교육랩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

U5U6

코로나19 시대, 예술의 안부를 묻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칼럼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창작활동이 노동이 되고, 예술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예술 노동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될 수는 있을까?”

이슈1

[팬데믹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그들의 기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슈2

코로나 시대, 당신의 예술은 안녕하십니까? [열릴 것인가?]

“소극장은 젊은 연극 작가들의 프로 데뷔 무대이고, 연극 예술가들이 소통하는 공간이며, 대다수의 창작 작품이 첫 선을 보이고, 제작자 에겐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술시장이다.”

이슈3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 활동 [극단 자갈치, “복지에서 성지로”]

“광대들은 예술을 통해 사회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만, 알고 보면 사회가 내어주는 이야기로 인해 자신이 치유받으면서 넓고 큰 세상을 향해 한 발 나아가 보는 것이 그들의 직업적 숙명일 것이다.”

예술+정치

[정치는 예술을 대신할 수 없지만, 예술은 정치를 대신할 수 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것은 정치와 예술이 함께 공통으로 지향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보고서 갈무리

[2019 창의예술교육랩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

“알고 있던 것에 궁금함 또는 호기심에서 발동하는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나누다 보면 기존의 것에서 확장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술도 과학도 융합도 모두 같은 원리인 셈이다.”

기온이 오르면 주춤해질 것이라 예상되던 코로나 19가 진정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잠시라고 예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의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위기에 가장 취약한 영역들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회체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그러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 달려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역할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예술영역이지만, 사회의 가장 약한 상처들을 끊임없이 예술로 담아내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술이 사회 각 영역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예술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모습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문화정책이슈페이퍼 4호에서는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함께 담아보려 노력하였습니다. 세심한 시선으로 현장을 살피면서 장기적 전망을 모색하는 문화정책의 고민을 문화정책이슈페이퍼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지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 그리고 예술인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날인 11일,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는 예술인의 고용안정 보장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에 1년 6개월 이상 계류되어 있던 법안이 고용 위기 시대라는 급물살을 타고 통과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규정(안 제77조의 2 신설), ②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을 규정(안 제77조의 3 신설), ③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77조의 4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내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예술인의 구직 급여 요건 (안 제77조의 3)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단기 예술인(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1)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당면한 문제들

그러나, 예술인 창작 활동, 노동의 특성상 그 대상을 모든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을 포괄하기에는 아직 짊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우선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제77조의2)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예술인의 정의 일부를 담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존 제도에서 담지 못했던 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이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보험의 혜택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예술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는 불규칙적이고 단속적인 예술활동의 특성상 문화예술 용역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법 필요한 상황이다. 타 분야에 비해 영화는 비교적 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된 장르라고 할 수 있고, 공연분야도 계약이 있긴 하지만 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장르의 특성상 계약 체결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예술인들은 작품을 준비하는 창작 과정 또한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실제 사업주들 또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결국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관행의 개선과 계약에 포괄하는 노동의 범위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을 맺거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제77조의 2 제5항) 하고 있다는 점도 아직까지 예술인 고용보험이 풀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예술인 기본소득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재난은 우리 사회가 취약했던 부분들에 눈을 돌리게 했다.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안정된 노동 환경 밖에 있거나 또는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취약했던 분야부터 실업이 발생하고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 19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공모사업들도 지연되면서 예술인들은 가장 앞서서 위협을 받았다. 지난 2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현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예술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무대를 잃고, 관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타개책이 잘 보이지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발표한 직후 마련된 5월 간담회에서도 예술인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했지만 요건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자격인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두 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목소리는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소득증빙 기준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과 예술 창작과정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두 간담회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한 안타까운 점은 미술이나 문학 등 순수 창작 예술분야는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환경 상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었다.

예술인들에게 ‘실직상태’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창작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이 아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 창작활동이 노동이 되고, 예술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예술 노동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전의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될 테니가 말이다.



팬데믹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최근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예술인들이 부산문화재단에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다.

지난 4월 말 부산시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문화예술인 3,2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창작활동 지원, 굿모닝 예술인 지원, 힐링과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코로나 19 피해 극복 문화예술계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 중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은 긴급생계비 지원이고, 이를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제일 중요한 기본요건이다. 그동안 잘 몰라서, 혹은 알고 있어도 실생활에 별로 도움되는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나의 예술활동을 국가에서 증명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 등등 이제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으리라..

코로나 19 사태로 거의 모든 공연과 전시, 지역축제, 각종 예술강좌 등이 사실상 멈춰버린 지금 부산의 문화예술인들도 예외 없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세상 이치가 그러하듯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피해나 어려움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그들의 기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사람쯤으로 생각되어 왔었고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실상 코로나 이전부터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저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지난 2011년 1월 지병을 앓고 있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월셋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故 최고은 작가가 이웃에 남긴 쪽지 중 일부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복지법 제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부산에서도 2013년부터 ‘부산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및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전국 광역문화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2017년 문을 열기에 이르렀다.

특히 2016년부터는 예술활동증명 대행사업을 통해 4,000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증명을 마쳤고 매년 300여 명이 창작준비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며, 10억 가량의 시비를 확보하여 부산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내고 있다.

또한 센터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예술인복지정책과도 연계점을 마련하고, 굿모닝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반딧불이 사업 등 지역의 독자적인 영역 발굴 및 지원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부산지역 예술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15, 2018년 2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 예술인의 실태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현장의 요구와 정책과 사업의 한계점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자

료를 바탕으로 민선7기 문화예술분야 정책, 부산문화 2030 비전, 부산문화재단2030 비전 등의 정책비전과 전략에 예술인 복지 영역을 주요한 과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반면 전국에서 처음 선도적으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나 단순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대행과 안내 역할에 그치면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만의 정책들을 펼쳐 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즉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복지정책 개발에는 미비했다는 점 또한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19 시대에 예술인들의 생계와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2014년부터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논의와 준비 등을 하였으나 6년이 지난 이제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마침내 통과되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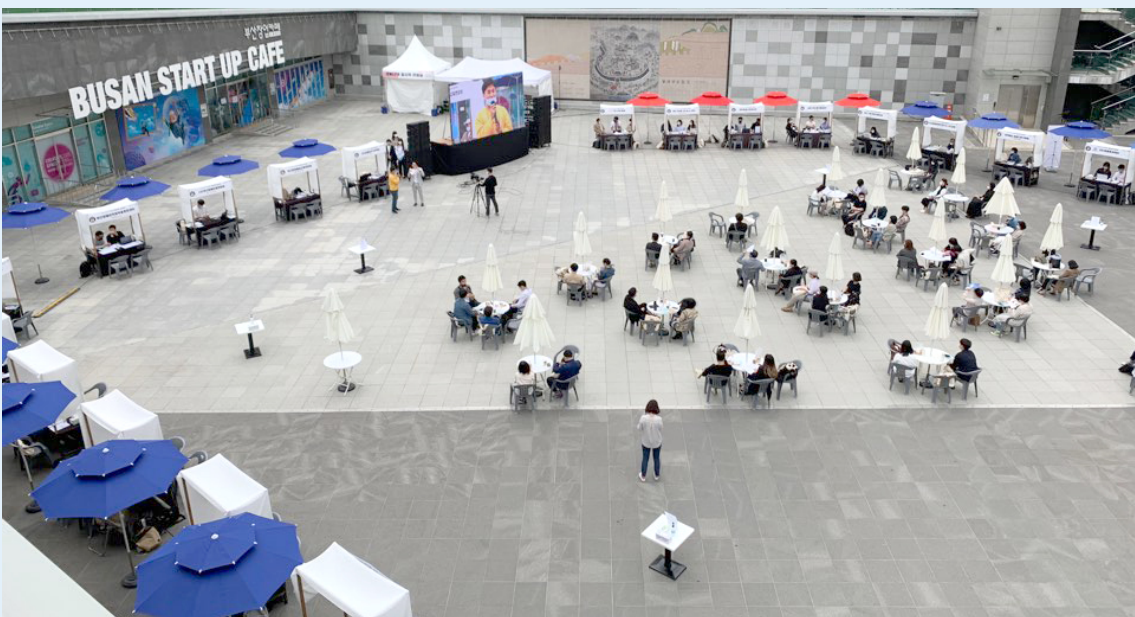
이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헌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요즘 한창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제'에 앞서 '예술인생활임금제'를 우선 도입해서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부산문화비전 2030에서도 <부산예술인 복지 2030 계획>을 통한 예술인의 집(주거, 창작지원이 가능한) 조성, 고층 센터 건립, 공공주택제도, 복지금고 도입 등 예술인들의 최저 생활 보장과 창작환경개선의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촉발되고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확대와 위상강화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부산지역 고유의 복지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인들의 삶, 지위, 권리, 사회적 역할 및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알려내야 한다.



'2020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매칭데이 - 예술인을 JOB아라' 행사

<참고> 2020년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주요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창작역량강화	예술인창작준비금 신청 대행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	
	원도심 빈집활용 <청년마을놀이터>	
	부산예술인 아카이빙사업	
	예술지원 홍보사업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일자리 파견 지원사업(개인형,협력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력
불공정관행개선	예술인컨설팅 매칭사업 - 법률, 계약, 저작권 등 상담 및 교육	온, 오프라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운영	
사회안전망구축	사회보험료지원,산재보험,예술인금고,의료비 지원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력
센터운영	예술인 퍼실리테이터 운영	
	예술활동증명 대행	

문의: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745.7232~3) www.bscf.or.kr.



청춘나비아트홀 연극 세미나
© 청춘나비소극장

코로나 시대,

당신의 예술은 안녕하십니까?

열릴 것인가?

강원재 청춘나비소극장대표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

부산 연극계도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으며 주춤거리고 있다. 대다수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공연장도 휴관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과 너무나 다른 일상의 변화는 지역 공연계를 멈추게 하였고, 본업이 사라진 예술가들은 그나마 생활의 안정을 찾아주던 예술강사까지 멈추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 정부와 지자체는 예술계에도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재난지원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갑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안감을 느낀다.

코로나 19가 오기 오래전부터 부산의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연극시장은 풀리지 않는 사회적 문제들로 정체되고 굶아 있었다. 전문 예술 인력의 부족과 중앙 집중 현상, 민간 공연장 쇠퇴, 순수 공연예술 시장에 대한 사회적 외면, 전문교육 부족 등. 최근 부산의 대표적 민간 소극장 두 곳이 폐관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4월 말, 부산시에서 부산 예술계와 소극장에 긴급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때마침 코로나 19로 긴급수혈이 시작되었고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다시 각자가 안고 가야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부산 소극장'은 계속 위기였다'

올해 초 두 개의 연극 전용소극장(한결아트홀, 청춘나비아트홀)이 폐관을 하였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전이다. 운영난과 임대인의 압박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19가 오기 전, 두 극장이 문을 닫는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후 소극장 협의회(부산 소극장 연극 협의회)는 부산시와 부산 소극장 위기에 대해 소통 중이었다. 부산 소극장은 오래전부터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 각 극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폐관을 염두하고 있는 극장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왔다. 다른 여러 소극장들이 2월부터 휴관을 시작하였고, 5월 말 기준 3개월 동안 소극장 협의회 소속 7개 극장 중 단 두 작품만이 공연되었다. 현재 부산 연극시장은 몇 개의 상업적 공연 외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소극장들은 버티고 있다. 그렇지만 내부에선 코로나 19가 올해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부산 소극장의 대다수가 내년을 건디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 버티기에는 각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소극장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동안 문화예술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을 만나며 아쉬웠던 것은 소극장에 대한 인식이었다. 연출이나 배우 그리고 극단의 존재가치는 이해를 하지만 극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예술단체로 보기보단 단순히 개인사업자나 공간을 상업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극장은 젊은 연극 작업자들의 프로 데뷔 무대이고, 연극 예술가들이 소통하는 공간이며, 대다수의 창작 작품이 첫 선을 보이고, 제작자에게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술시장이다. 소극장이 건재하면 공연예술시장의 기반은 튼튼할 것이다. 그러나 소극장이 사라지면

1) 이 글에서 부산소극장은 지역의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민간소극장을 의미한다.

부산의 공연예술시장은 도태될 것이다.

부산 소극장은 지역 공연예술시장의 중요한 기반이다. 지역 순수예술의 기반이 되는 부문에 대한 지원은 문제의 본질을 조사 검토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소극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산시에서 후원하는 소극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창작지원인데 소극장에서 창작공연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 외에는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지원사업', '특성화 극장 지원사업'이 있으나 심사기준에 지역 공연예술시장의 특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소극장이 수혜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분명 지역 소극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극장의 지원사업은 기존 창작지원형태와는 달라야 한다.

소극장 운영이 어려워진 제일 큰 이유는 부산에서 제작된 연극 공연의 개수가 매년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소극장은 평균적으로 매년 3개 내외의 창작공연을 제작하고, 이 외에는 대관공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 한 해(2019년) 극장 가동률은 연평균 50%가 안 되고, 2018년과 비교하여 전체 공연이 20% 이상 감소하였다. 공연의 개수도 줄고, 공연 회차도 줄었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산에서 제작된 공연이 많아져야 한다. 좋은 작품도 있고 안 좋은 작품도 있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이 생기고 점차 작품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예술지원정책만으로는 모든 공연을 수용하기는 힘들다. 대부분의 예술지원정책은 심의를 통하여 수혜단체를 선별하는 선택집중 방식이다. 정해진 예산이 있고,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함이다. 신청한 모든 단체에게 골고루 지원을 해주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극장의 지원이 극단의 작품 제작에 도움이 되고, 작품의 개수와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극장 운영의 직접적인 지원은 부산 극단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금은 긴급수혈이 필요한 때다.

앞서 얘기했듯 올 한 해를 버티지 못하면 부산 소극장은 내년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이 직접 민간 소극장들을 장기 대관하여 올해 지원받지 못한 공연예술단체나 젊은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전에 상호 소통과 이해의 과정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관계기관(문화재단)이 민간협회와 협력하여 행정상의 문제점을 상호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공동 개발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 소극장은 소리를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문을 두드려 왔다. 이번 코로나 19가 계기가 되어 소극장들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개선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청춘나비아트홀 철거 후 모습
© 청춘나비소극장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활동

극단 자갈치 '복지에서 성지로'

손재서 극단 자갈치 단원

그림1 2014년 '복지에서 성지로' 공연 후 피해자와의 대화
© 극단 자갈치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이 통과되었다. 926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 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와 한중선 씨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을지 감히 나는 알지 못한다.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된 근거는 국가가 제공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가 그것이다.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이 훈령을 만들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 내무부 훈령 410호 말 한마디였다. 법령도 아닌 훈령. 이 말 한마디로 12년 동안 2~3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 인권유린을 당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만 513명이 사망하였다. 고위 공무원 혹은 대통령의 한마디 말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에 비해 진상규명을 위해, 혹은 자신의 과거가 부랑인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공권력에 의해 끌려가 인권유린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 세월 국회 앞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피켓을 들고 926일 동안 차가운 천막에서 노숙을 해야 했던 두 사람의 말은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림2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아이들
©한겨레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알려내는 '복지에서 성지로 1'

극단 자갈치는 '지역민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를 가꾸고 키워나간다'는 생각으로 1986년 만들어진 단체이다. 극단의 실제적인 창단공연은 1987년 '복지에서 성지로'라는 작품이었다. 그 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유린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고 국회 조사단이 파견되어 조사를 벌이기 시작하자 자갈치 단원들은 주례동 형제복지원으로 달려가 현장 취재를 하고, 신문 기사를 모으고, 밤낮으로 의견을 나누며 대본 작업을 하고 공연을 만들었다.

70년대 유신독재 속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마당극(굿) 운동의 기본정신은 상황적 진실성, 현장적 운동성, 집단적 신명성, 민중적 전형성을 삶의 현장에서 누려보게끔 하는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언론통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막혔을 때, 마당극은 대안 언론의 역할을 맡아 가려진 진실에 접근하는 공연을 만들어왔고, 극단 자갈치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노력해왔다.

아울러 "복지에서 성지로"는 언론을 대신하는 역할에 집중된 작품만은 아니었다. 1987년은 6월 항쟁의 결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된 해였으나, 양김의 분열로 인하여 다시 권력을 군부 출신의 후보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공연의 3마당은 외부의 도움으로 복지원을 탈출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다시 경찰에게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여기에는 민중들이 정신을 차리고 앞날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복지원'에서 '성지원'으로 장소이동만 하고 말 것이라는 메타포를 담은 결말이었다.

"복지에서 성지로"는 1987년 부산 YMCA와 부산대 넉넉한터 공연을 시작으로 1988년 서울 미리내 소극장에서 열린 제1회 민족극 한마당에 출품하였으며, 이후 많은 대학과 생산현장에서 공

연되었다. 초연은 채희완 선생님의 연출로 제작되었고, 이후 1999년 전병복 연출과 2007년 손재서 연출의 작업으로 새로이 제작되었다. 10년 주기로 다시 제작되어 배우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들이 표현될 만큼 풍성한 작품이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낸 '복지에서 성지로 2'

이 작품은 2013년 서울에서 열린 변방연극제에 임인자 예술감독의 초청으로 공연 제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극단 사정으로 공연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공연 영상만 초청 상영되었다. 그 해의 변방연극제는 당시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오던 한종선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주제로 다루어진 행사였다. 우리가 만들었던 공연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알고 싶어 하였는데도 우리는 이에 화답할 수 없었다. 당시의 미안함은 마음 한 편에 응어리로 남았고 이 빛을 갹기 위해 우리는 한종선 씨와 임인자 예술감독을 극단으로 모셔 이야기를 듣고 “복지에서 성지로 2” 작품을 만들기 위한 제작에 들어갔다. 당시 영상으로 전작을 감상한 소감을 물었을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극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희화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진실을 알고자 했던 작품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극적장치로 인해 당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속편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지 않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당시 출판된 한종선 씨의 책을 함께 읽고,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면담을 하며, 그분들의 심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작업에 임하였다.

전작이 형제복지원 내에서의 당시 사건을 주로 다루었다면 “복지에서 성지로 2”는 그분들이 사회로 복귀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1마당은 당시 꼬마였던 피해자가 어른이 된 후 박인근 원장의 집에 잠입하여 ‘왜?’ 라는 질문을 던지다 잡혀 다시 감금당한다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아직도 세상은 너희들의 이해에 의해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늘 뒤를 조심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를 품은 일종의 서스펜스 활극물이었다. 2마당은 전작에서 다루지 못했던 여성 피해자의 복지원 내에서의 참상과 복지원을 탈출하고 싶은 끝나지 않는 꿈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3마당은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난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앞날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주말 공연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극 중 인물인 박인근 원장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시거나,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지켜봐 주신 피해자분들과 함께한 공연은 또 하나의 뜨거운 현장이었다. 그 어떤 공연도 이때처럼 생생한 현장감을 누리진 못할 것이다.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분들이 전해주시는 질타와 감사의 인사는 극단의 미래에도, 광대들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에도 큰 자양분이 되었다.



그림3 2014년 “복지에서 성지로 2” (부산 민주공원소극장)
© 극단 자갈치

사회에서 내어주는 이야기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광대의 역할에 대하여

극단 자갈치는 창단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의 이야기, 공해문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전쟁 이후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왔으며, 근래에는 부산특산품 어묵(오뎅) 이야기와 영산줄당기기 이야기 등을 다루며 소재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근처에는 늘 지역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다루려는 정신이 깔려있다.

넓을 광(廣)에 큰 대(大). 광대라! 광대는 가진 말과 재주로써 세상을 놀이판 위에 올려놓고 노는 사람이다. 광대가 가진 말은 위선자들이 가진 말에 비하면 얼마나 힘없이 느껴지는가? 또 광대가 늘어놓는 이야기에서 당하고 사는 사람들의 말에 비하면 얼마나 허망한가? 하지만 광대들의 말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해,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향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이 자신을 살게 하고 세상을 살만한 것이게 한다.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여러 이유 중 한 가지가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광대들은 예술을 통해 사회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만, 알고 보면 사회가 내어주는 이야기로 인해 자신이 치유 받으면서 넓고 큰 세상을 향한 한 발 나아가 보는 것이 그들의 직업적 숙명일 것이다.

극단 자갈치의 ‘복지에서 성지로’ 작품을 필두로 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은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그려졌다. 특히 2012년 실제 피해자인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책위 대표의 책 ‘살아남은 아이’가 출간되면서 형제복지원 문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하게 예술작품에 조명되었다. 2018년에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연극 릴레이의 일환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직접 출연한 연극 ‘편육’을 비롯하여 연극 ‘못찾겠다 꾀꼬리’가 극단 자갈치 신명천지 소극장에서 열렸다.

〈형제복지원 소재 주요 예술작품〉

- 1987. 연극 ‘복지에서 성지로’ (극단 자갈치, 채희완 연출)
- 1999. 연극 ‘복지에서 성지로’ (극단 자갈치, 전병복 연출)
- 2007. 연극 ‘복지에서 성지로’ (극단 자갈치, 손재서 연출)
- 2012. 책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지음)
- 2012. 연극 ‘해피투게더’ (떼아트르 뽀날, 이수인 연출)
- 2013. 실험다큐극 ‘우리는 난파선을 타고 유리바다를 떠돌았다’ (제15회 변방연극제 초청작)
- 2014. 연극 ‘복지에서 성지로 2’ (극단 자갈치, 채희완 연출)
- 2018. 연극 ‘편육’ (극단 수정식당, 진준엽 연출)
- 연극 ‘못찾겠다, 꾀꼬리’
(극단 프로젝트 업라이트, 한승훈 연출)

“정치는 예술을 대신할 수 없지만, 예술은 정치를 대신할 수 있다.”

- 서독 초대 대통령 테오도르 호이스 (Th.Heuss)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

우리 삶의 기본인 의식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마도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예술도 예외는 아니다.

잠깐, 사전에 나와있는 정치와 예술의 정의¹⁾를 찾아보면,

정치: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예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과연 이 두 단어는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접점의 경계선에서 예술과 정치는 해묵은 논쟁을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예술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예술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허용의 문제인가? 당연한 것인가? 등등..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에는 한국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있고, 밀레의 <만종>에는 당대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있다. 이를 순수/참여로 논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작가와 그의 작품이 역사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대사 또한 마찬가지다. 일제시대와 군사독재 시절에 독재와 비민주적 행태에 대항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워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재와 주제의 편향성으로 인한 작품이 가졌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사랑받는 작품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싫든 좋든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공간에 살면서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무관심으로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겠지만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이 작은 단위의 정치 형태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하고 거리를 둔다고 한들, 우리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동물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와 행위는 정치적 산물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연 예술가도 포함된다. 예술과 정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호응 관계인지 무관한 관계인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예술의 정치적 행위가 얼마나 의도적(혹은 의식적)인가 혹은 비의도적(혹은 무의식적)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 인간은 가치관이라는 상자에 갇혀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번 감행된 예술 활동과 정치 사이의 고리를 완전하게 끊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조지 오웰은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예술과 정치가 만나는 접점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잘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단함과 피로를 풀고 위로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개개인의 삶은 조금 덜 피로하지 않을까.

코로나 19로 전 지구인들이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정치가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것은 정치와 예술이 함께 공통으로 지향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1945년 영국에서는 예술 평의회를 창립하면서 예술을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그 유명한 “팔 길이 법칙(Arm's Length principle)”을 주장한다.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슬로건은 지금도 예술행정의 큰 틀을 만드는 유용한 원칙으로 자주 인용된다. 예술과 정치 사이에는 ‘틈’과 ‘긴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광의의) 정치를 외면하는 예술도, 예술을 외면하는 정치도 결국은 사람들로 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부산진구는 올해 7월 ‘부산진구 문화재단’을 발족한다.

예술과 정치의 아름다운 콜라보로 부산진구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정치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름다운 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다.

1)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예술과 과학이 합을 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

- 2019 창의예술교육랩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

조영미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대표

부산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랩 사업 목표

- 융합의 본질에서 출발하기

예술은 완전히 새로운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던 것에 궁금함 또는 호기심에서 발동하는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나누다 보면 기존의 것에서 확장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도 과학도 융합도 모두 같은 원리인 셈이다.

2019 창의예술교육랩 사업의 진행 과정

- 차이를 발견하는 집단지성의 공유

창의예술교육랩에서 진행하는 예술과 과학 융합은 기존의 STEAM¹⁾ 교육에 기초하면서도 융합의 본질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시작하게 되었다.

2019 창의예술교육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이 구체화되었다. 그 중 기관 연계 협력형 프로젝트로 기획된 것이 <예술+과학 융합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다. 예술가 3명(정만영/사운드설치미술가, 이정임/무용가, 문지영/미술가)과 국립부산과학관 연구진 2명(최준영/선임연구원, 박주은/연구원)으로 시작했다. 연구 설계를 위해 선행 사례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즈음 장르가 다른 예술가 1명(김덕희/설치미술가)이 영입되었다. 5주간 주 2회씩 연구를 진행했다. 2회 중 1회에서는 선행 연구자료 분석내용을 공유하며 각자의 교육철학이나 방법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어갔으며, 또 다른 하루는 한 주 간에 떠올랐던 잡다한 생각들을 마구 쏟아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그날을 ‘르네상스 데이’라 불렀다. (르네상스 시대의 집단지성을 표방하여 이름 붙였다)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각자의 생각을 보태거나 덜어내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4월부터 시작된 선행연구의 후속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실험과 시연 연구에 들어갔다. 개별 과정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시연은 참여 예술가와 과학관 연구진 모두 참여했다. 두 번째 시연은

예술가 4명 간의 교차 연구에 과학관 연구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주간 진행된 실험과 시연의 과정들은 프로그램화를 위해 수없이 많은 피드백과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다. 이런 과정이 거의 끝날 때쯤 움직임 장르와 현대미술에 협업이 가능한 과학관 연구진 두 명(박주영, 이행자/과학관 교육강사)이 마지막으로 추가 영입되었다.

천체우주+설치미술
공개수업 장면

창의예술교육랩 개발 프로그램

- 천체우주+설치미술, 물리+공연예술, 인지과학+현대미술

이렇게 7월까지 이어진 연구 회의를 거쳐 우리는 ‘천체우주와 설치미술’의 융합, ‘물리와 공연예술’의 융합, 그리고 ‘인지과학과 현대미술’의 융합이라는 세 개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하였다.

첫 번째 천체우주와 설치미술의 융합 프로그램 <내 눈에서 빛나는 별소리>는 천체의 종류와 차이, 빛의 성질, 파동과 소리의 특성, 이미지와 소리 유추, 소리를 디자인하는 방법과 녹음, 발광다이오드와 센서의 원리 이해, 아두이노2) 활용을 통해 자신만의 별자리에 빛과 소리를 입히는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물리와 공연예술의 융합 프로그램인 <쇼 미더 새도우>는 빛의 직진성과 그림자 원리, 그림자 크기 변화에 대한 이해, 신체를 활용한 그림자 형태 변환을 바탕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그림자극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 인지과학과 현대미술의 융합 <촉각이 깨어날 때>는 질감, 압력, 진동, 온도 이해와 이러한 촉각의 지각, 인체에 미치는 영

1)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앞글자로 구성된 용어로서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인재교육

2) 다양한 센서나 부품을 연결할 수 있고 입출력, 중앙처리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기판

향에 대한 이해, 나만의 그리퍼 제작 후 다양한 변화와 변수에 대한 실험, 이를 통해 인간의 능동적인 정보 습득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형, 캠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이중 캠프형 프로그램은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연구원 참여 실험 장면

2019 창의예술교육랩 사업의 의의

- 참가자의 주도적 문제해결을 독려하는 영역 간 협력

이렇게 9개월의 긴 연구는 끝이 났고, 과정은 매우 복잡했지만, 결과는 담백했다. 어쩌면 대단하지도 않고 특이하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서 '그 시작'을 세 개의 성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융합 교육 연구 체계 구축이다. 모든 연구가 비슷한 과정으로 설계되었지만 창의예술교육랩의 연구 과정은 선행 연구자로 분석, 이를 통한 오류의 최소화, 그리고 개별 시연과 교차 시연을 통한 '제대로 된 융합' 클리닉 작업이다. 두 번째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원칙 마련이다. 예술의 원리든 과학의 원리든 어느 쪽이라도 대상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부터 제공하여 협력하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시키는 것, 그리고 창작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구상한 결과에 도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 분야에 비교해 다소 융합 기회가 적었던 공연예술 장르와 과학 융합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2019 창의예술교육랩은 의미 있는 시작이었고, 과정이었고, 발견이었다.

작년의 연구는 2020년 올해도 이어진다. 2차 년도에 들어선 연구는 프로그램 클리닉 작업과 동시에 보급과 확산을 위해 유연하게 보완될 것이다. 이전보다 기대되는 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대상들에게 더 많은 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2019 창의예술교육랩 예술+과학 융합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은
'부산문화재단 아카이브(e-archive.bscf.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리+공연예술 공개수업 장면



부산문화재단

- **시민이 직접 편당한다! 시민주도형 메세나 사업 공모 시작(05.21.)**

부산문화재단은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리를 두고 차이를 즐기자!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최(05.12.)

부산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을 맞아 오는 5월 21일(목)부터 5월 23일(토)까지 3일간 '무지의 장막'이라는 주제로 부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컬처튜브)을 통해 「2020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를 생중계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05.21.)**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05.20.)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 등 5개 지역에 문화향유사업을 통합 지원한다(04.08.)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향유사업 통합 지원 대상 지역으로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 강원 태백시, 전북 고창군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코로나19 대응, '공연실태 생중계 사업' 긴급 추진(05.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냉각된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연실태 생중계 사업>을 긴급히 추진한다.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에서 맞춤형 지원 대책 찾으세요(05.15.)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artnuri.or.kr 또는 아트누리.kr)'을 개설하였다.

예술위,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한 문화예술 사회적가치 확산 프로젝트 지원(04.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3월 카카오같이가치,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과 공동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모금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020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대국민 온라인 공개토론회(05.26.)**

전 세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을 모색해온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이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대국민 온라인 토론회를 준비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709명에게 활동비 8억 7천만 원 선지급(05.2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로(路)>(이하 예술로) 참여 예술인 709명에게 활동비 8억 7천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원문화재단

- **몽치면 받는다! 중장년 소모임 활동 지원!(05.22.)**

강원문화재단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존', '공생', '공유', '공감'의 다양한 인문 활동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5월 29일까지 중장년 중심의 소규모 활동그룹을 모집하였다.

서울문화재단

- **[잠실창작스튜디오]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젝트A> 참여 아동 공모(04.02)**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조아제약과 함께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A>의 멘티 5명을 선발하는 '장애아동 미술 멘토링'을 4월 25일 오후 2시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에서 개최하였다.

전북문화관광재단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우리 지역 문화정책은 우리가 만든다(05.07.)**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우리 지역 문화정책을 만드는 '2020 도민문화정책발굴단'을 추진한다. 재단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을 도민이 직접 발굴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주문화재단

- **2020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사업 공모 시작 (04.13.)**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은 해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2020년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사업을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 진행하였다.

충북문화재단

- **충북문화재단 '정책협력협의회' 운영한다(04.21.)**

충북문화재단이 문화예술·생활문화 지원사업 심의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협의체를 구성한다. 재단은 이와 관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 '정책협력협의회'를 구성해 내년에 진행될 지원사업의 공모요강부터 심의, 장르별 예산문제까지 협의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연구원

- **부산연구원 Post Covid-19 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04.27.)**

부산연구원은 코로나 19 위기 이후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정 과제를 담은 'Post COVID-19, 부산시민행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금정문화재단

- **금정문화재단, '아르코공연연습센터@금정' 개관(05.21.)**

금정문화재단은 6월 5일 오후 2시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1층에서 '아르코공연연습센터@금정'의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Vol. 발행일: 2020.06.15 | 발행인: 강동수 |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4

TEL 051-745-7205~7 www.bscf.or.kr | 편집위원: 송교성 송진희 이지훈 차재근 | 편집기획: 안재홍 원항미 | 디자인 제작: 순간과영원 TEL 051-244-7504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